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차이에 관한 일고*

지 성 표**

〈目 次〉

- I. 서 론
- II.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개념
- III. 국제통상학(과)의 발전과정
- IV.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인식비교분석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한국의 세계화와 국제통상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무역학과와 이를 달리하는 국제통상학과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설되어¹⁾ 총 28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학과와의 개설과 더불어 학문 역시 기존의 '무역학'과는 차별되는 '국제통상학'이 탄생되어 새로운 국제통상학 교재의 발간, 한국국제통상학회의 창립²⁾ 등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이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을 동일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과오는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둡니다.

**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1) 1993년 동국대학교(경주), 1994년 여수대학교, 1995년 한국해양대학교 등에서 국제통상학과 개설

2) 한국국제통상학회는 1995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350여 명의 대학교수회원, 기업일반회원 270여 명 등 총 520명 회원에 이르고 있다.

시하거나, 구분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을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차이나 유사성 등에 관한 이해와 학문에 관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이다.³⁾

또한 영문의 ‘International Trade’의 개념에서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으로 동시에 번역이 가능하여 한국어의 의미 차이에 따른 구분이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영문에서는 더욱 혼동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통상을 ‘International Trade’와 분리하여 ‘International Commerce’로 영역하기도 하며, 국제통상을 국제무역에 서비스 교역, 국제투자 등 무형적 재화의 국제이동을 덧붙이는 광의의 개념으로 주장하는 견해⁴⁾도 있으나, 한국에서의 무역학 범위가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국제상학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국제통상학만이 서비스 교역, 국제투자 등을 확대·취급하여 무역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란 주장은 기존무역학자에게 인정받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⁵⁾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무역학과에서 국제통상학과로의 개칭을 하기도 하며,⁶⁾ 이에 반하여 어떤 대학에서는 국제통상학과에서 다시 무역학과로의 환원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⁷⁾ 하므로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더욱 흥미 있는 것은 동일대학에 무역학과 (또는 전공)와 국제통상학과 (또는 전공)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학이 국립대학 2개⁸⁾와 사립대학 1개⁹⁾ 등 3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과와 학문의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두 개의 학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아울러 두 학문(학과)의 차이와 이에 따른 경계의 구분, 두 학문이나 학과의 개념적 정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물론 두 학문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흡수통합의

3) 〈표 3〉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상이성)에 관한 이해’를 참조하면 ‘모르겠다’와 ‘확실히 않다’는 응답이 67.83%(총 143명 중 97명)를 차지하고 있다.

4) 서근태, 이은섭 외 3인(1999), p. 3.

5) 〈표 13〉 충남대 ○교수 주장 참조.

6) 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등

7) 관동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경제무역학부로의 개칭

8)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와 해양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9)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

가능성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떠한 견해에도 현실적으로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두 학문이나 학과에 대한 우선적·개념적(동질성이나 이질성) 차이에 관한 연구는 두 학문의 발전방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학제 간의 통합협력, 보완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접학문들의 서로 간의 학문적 관계에 비추어 보아 이들의 학문적 관계가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학문적 관계에도 원용가능한지와 한국에서의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의 위치 등을 살펴보고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관한 파악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주장에 대한 엇갈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무역학과와 통상학과의 차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어떠한지도 아울러 파악해 보아 본 논문에서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반적 견해와 일치하는지도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 학문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를 계기로 양 학문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적극적 토론과 학문적 관심을 증대시키어 양 학문의 독립적 또는 통합적 발전이나 보완적 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우선한다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학문과 대학의 학과는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 경우는 한 학문이 한 학과를 이루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학문이 모여 한 학과를 이루는 경우가 있으며, 한 개의 학문이 여러 개의 학과로 나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개의 학문이 여러 개의 학과로 나뉜 예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경영학이 발전함에 따라 경영학과가 경영대학으로 발전하고 경영대학에는 재무학과, 마케팅학과, 보험학과, 국제경영학과 등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이 학과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경영학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므로 한 개 학문이 여러 개의 학과로 나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학문이 모여 한 학과를 이룬 예를 살펴보면 한국의 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 등의 학문들이 모여 무역학과의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역학과와 국제통상학과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여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이 구분되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의 개념적인 차이와 동질성에 관하여 여러 사람 각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떠한 공통적인 인식의 차별성은 대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무역학과와 국제통상학과가 함께 각기 특성을 유지한 채 한 개의 학부로 발전되어 무역학전공과 국제통상학전공으로 존치될 수도 있으며 전체적 통합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의 개별적 학문적 위치의 확립은 독자적 발전, 학부제로의 발전, 통합적 발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학과 국제통상학 두 학문 모두가 학제 간 연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용학문인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두 학문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는 현실 적용분야에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도 두 학문의 보완적 측면에서나 중복의 회피면에서 두 학문의 학문적 개념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Ⅱ절에서 기존 국제통상론과 무역학원론에서 나타난 두 학문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경영학과 경제학 관계를 원용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차별성을 나름대로 분석·정리하여 보겠으며, 제Ⅲ절에서 한국에서 국제통상학(과)의 학문적 현실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인접하면서 먼저 설립된 무역학과의 경우를 살펴보고 국제통상학과와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Ⅳ절에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가 차이가 과연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하여, 또한 차이가 있으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차이와 일반적 견해는 일치하는지, 그리고 향후 두 학과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당사자인 국제통상학과 학생들과 무역학과 학생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무역학과·통상학과 교수들의 견해에 관하여도 본 논문에서의 주장과 얼마나 합치되는지 또는 얼마나 괴리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해 보겠다.

전공학생들의 설문에 더 나아가 교수들의 설문에서는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유사성이나 상이성에 관한 주관적 기술과 더불어 양 학과의 샘플 교과과정에 대한 견해도 조사·분석하여 본 논문에서의 주장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Ⅴ절에서 이러한 설문분석결과와 본 논문에서의 주장을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결론과 함께 양 학문(학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개념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경제학이 경제활동을 국민경제적 관점(거시경제학)이나 개별경제주체적 관점(미시경제학)에서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경영학은 경제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비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이익이나 합리적 경영목적)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영학과 경제학의 관계를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에 관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먼저 '국제통상'의 사전적 의미에 의한 기본개념을 살펴보자.

'통상(通商)'이란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것이다. 상(商)이란 개인과 기업 상호간의 경제활동이므로 이를 통하게 하는 것이 '통상'이다. 통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통하게 한다는 강제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국제통상'이란 국가란 주권단위가 국가 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간의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이다."¹⁰⁾(강인수 외)

이 정의가 내포하는 것은 '국제통상'이란 국내상거래에 비해 국제적인 상거래 또는 경제활동은 국가의 주권이란 장벽이 존재하므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므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약요인인 국가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기 위한 국가 간 또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취하는 각종 활동 및 과정이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무역'이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로서 물품과 서비스의 유상적 교환이며, 넓은 의미로는 각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영역인 경제적 활동제약범위를 극복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상품 및 용역, 그리고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들을 교환하는 경제적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으로부터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그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원료, 노동 및 자본이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¹¹⁾

10) 강인수 외(1998), pp. 37~41; 김영철 외(1999), p. 17.

11) 김시경(1998), p. 40.

이와 같은 ‘국제통상’과 ‘무역’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국제통상’과 ‘무역’에는 분명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제통상’이 ‘무역’의 개념에 서비스교역, 국제투자 등 무형적 재화의 국제적 이동을 덧붙이는 광의의 개념이란 주장¹²⁾보다는 ‘국제통상’은 ‘무역’과는 다른 영역, 즉 국가 간의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과 관련된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즉, 경제학과 경영학이 경제 활동에 공통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이 존재하듯이, ‘국제통상’과 ‘무역’은 국가 간 경제교류활동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무역’의 주체가 개별경제주체인 것인 데 반하여 ‘국제통상’의 주체는 개별경제주체보다는 양 국가 또는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역이 개별경제주체가 보다 합리적 경제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 간 상품, 용역 그리고 생산요소를 교환하는 것이라면, 국제통상은 국가란 주권단위가 상기의 국가 간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해 원활하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무역의 영역이 개인적 인 사 기업적 경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통상의 영역은 공적·공공이익적 측면,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표 1>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 ‘국제통상’과 ‘무역’의 개념적 차이

	국제통상	무 역
공통영역	국가 간 경제교류활동	
공통적·학문적 특성	응용학문 학제 간 연구접근	
행위주체	국가·여러 국가·국제기구	개별경제주체
행위목적	국가공공이익	개별경제주체이익
중요활동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	국가 간 상거래
주 관련영역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관련 공부문(public sector)	개인·사기업경제·경영활동 관련 사부문(private sector)

12)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표 13>의 충남대 ○교수 주장 참조.

Ⅲ. 국제통상학(과)의 발전과정

한국에서 국제통상학(과)의 학문적·현실적 위치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장 인접한 학문(과)이면서 먼저 설립된 무역학(과)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국제통상학(과)의 현위치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무역학과가 설립된 것은 서울대학교에 1960년대 초 무역학과가 설립된 이후 현존하는 무역학과로서는 1963년에 설립된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학과, 1980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1971년에 설립된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등 오늘날 국립대학 16개교, 사립대학 35개교 등 총 51개교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 무역학과가 설립된 배경에는 1970년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비롯하여 외화획득 및 수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분위기 등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한국에서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을 보면 무역이론을 연구하는 국제경제학분야, 국제비즈니스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영학분야, 무역실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제상학분야 등으로 크게 나뉘어 있어 무역학과는 무역과 관련된 제 학문이 명실공히 망라되어 있는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무역이란 현실에 적용시킨 현실응용학문을 추구하는 독립학문(학과)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또는 단지 미국에 무역학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역학과는 한국적 특수한 상황 또는 일본, 대만 등 무역을 지향하는 아시아적 특수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에만 존재하는 학과로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무역학과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대부분을 국제경영학에서 포함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국제무역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가 존재하고 있다.¹³⁾ 따라서 무역학(과)은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 상황에서 학제 간 접근이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학문(학과)으로서의 영역을 전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국제통상학(과)가 한국에서 설립된 것은 1993년 동국대학교(경주), 1994년 여수대학교, 1995년 한국해양대학교 등에서 개설된 이후 부경대학교, 공주

13) 영국의 College of Central London 경우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Diploma in International Trade를 수여하고 있음.

〈표 2〉 국제통상학과 개설대학 현황

구 분		설립연도	정 원	비 고
국·공 립	강릉대학 국제통상학과	1996	40	
	부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7	105	
	한국해양대학 국제통상학과	1995	40	
사 립 대	가야대학 국제통상학부	1995	170	
	경남대학 경제통상부 국제통상 전공	1999	120	
	경일대학 국제통상학과	1997	80	무역→국제통상
	경주대학 경영광고학부(야) 국제통상 전공	1996	40	
	계명대학 국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부	1996	220	무역→국제통상
	공주대학 국제통상학과	1999	40	
	광운대학 국제통상학과	1998	110	무역→국제통상
	국민대학 경제학부 국제통상학과	1996	160	
	남서울대학 국제경영학과 국제통상 전공	1998	340	
	대진대학 국제통상학과	1997	297	무역→국제통상
	동국대학(서울)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7	244	무역→국제통상
	동국대학(경주) 경제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3	218	무역→국제통상
	동서대학 국제통상학과	1996	40	
	상지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7	50	무역→국제통상
	서경대학 국제통상학과	1998	50	
	숭실대학 경제·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 전공	1997	120	무역→국제통상
	여수대학 국제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4	139	
	영산대학 통상학부 국제통상 전공	1999	243	지역통상학부에서 분리
	인제대학 국제경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9	100	
	인하대학 경제통상부 국제통상학과	1996	170	경제·무역통합
	중부대학 경상학부 국제통상학 전공	1998	200	
	한서대학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1995	40	
	협성대학 경상학부 국제통상 전공	1995	40	
	호남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 전공	1998	145	무역→국제통상
	호원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 전공	1999	190	

대학교, 경남대학교 등에 개설되어 오늘날 국립대학 3개교, 사립대학 25개교 등 총 28개교 이상에 이르고 있다.¹⁴⁾

한국에서 국제통상학과가 설립된 배경에는 1990년 중반 국내의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국제통상인력의 양성이란 취지로 출발하였으며, 한편으로 WTO출범 이래 국외의 국제통상압력 및 마찰증대, 신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등에 따른 국제통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성이 함께 작용된 측면도 있다 하겠다. 이에 따른 국제통상학(과)의 주된 연구분야는 국제통상이론, 국제통상정책, 국제통상협상, 국제통

14) 〈표 2〉 국제통상학과 개설대학현황 참조.

상법과 제도, 규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학과 역시 무역학과의 경우처럼 국제통상과 관련된 학제 간 협력에 의한 국제통상이란 현실에 적용시킨 응용학문으로서의 고유한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무역학과와는 다른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제통상학은 국가 간 협상의 최종적 결과로서의 특정 국제통상규범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 어떻게, 왜 특정 국제통상규범과 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국의 통상정책이 국제규범화 되었는지 등에 관한 학제 간 포괄적 연구에 더욱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무역이 단순히 개별경제주체가 국경을 넘어 단순히 경제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국제통상은 개별경제주체보다는 국가 또는 국가 주권을 대신하는 국가기관이 행위의 주체로서 개별경제주체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가 간 상거래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활동에 국제통상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제통상학(과)의 향후 발전방향도 무역학(과)와는 차별화된, 무역학(과)가 좀더 사부문(private sector)에 관련된 영역이라면, 국제통상학(과)는 좀더 공부문(public sector)과 관련된 영역으로서의 특수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겠다.

또한 국제통상학과는 ‘국제’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와 적응, 국가 간의 갈등해소에 이바지하는 세계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국제통상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데 그 발전방향이 있다 하겠다.

IV.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인식비교분석

1. 설문대상과 설문방법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차이에 대한 1차 설문대상으로 우선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원 교수들 중 FAX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FAX연결에 성공한 77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FAX로 설문지를 송부한 뒤 FAX로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 29부가 회수되었다. 2차 설문대상으로는 관련 국제통상학과와 무역

학과 학생들에 대하여 동일 설문지 중 교과과정에 관한 질문을 제외한 설문문항¹⁵⁾에 대해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동시에 개설되어 있는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2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들¹⁶⁾에게 수업시간 중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114명¹⁷⁾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지 구성은 14개의 질문에 대해 보기의 선택과 함께 적절한 보기 선택이 없을 경우 답변자가 직접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이 유사성(차이점)이나 두 학문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알기 위해 두 개 문항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 설문분석

(1)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상이성)에 대한 이해정도에 관한 질문

〈표 3〉에서 총응답자 143명 중 48% 이상인 70명이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은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는 응답자 29명 중 44% 이상인 13명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학생응답자는 전체 114명 중 57%인 65명이 ‘다른 것 같은 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교수응답자는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데 반하여, 학생응답자는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 같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이 다른 것 같다’는 것을 대다수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 중 27% 이상인 8명¹⁸⁾이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에 대한 질문

〈표 4〉에서 총응답자 144명 중 50% 이상인 73명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영역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도 29명의 응답자

15) 교과과목에 관한 10번째, 11번째, 12번째의 설문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학생설문지에서는 제외하였음.

16) 1999년 현재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는 4학년이 없음.

17) 응답자는 무역학과 학생 2학년 35명, 3학년 26명, 4학년 18명, 국제통상학과 학생 2학년 20명, 3학년 15명을 포함해 총 114명이며 〈표 2〉에서 〈표 10〉까지에서의 합계는 각 질문에 따른 무응답·응답자의 보기문항 2개 선택 등에 따라 합계의 증감이 있음.

18) ‘같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는 교수응답자 4명과 ‘같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교수응답자 4명을 더한 것임.

〈표 3〉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상이성)에 관한 이해

(단위: 명(%))

구 분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다 ¹⁹⁾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¹⁹⁾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¹⁹⁾	같은 것 같은데 확실히 하지 않다 ¹⁹⁾	같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기 타	합 계
학 과	무역	2학년	0(0)	23(65.71)	7(20)	4(11.43)	0(0)	1(2.85)	35(100)
		3학년	1(3.85)	12(46.15)	4(15.38)	4(15.38)	3(11.54)	2(7.69)	26(100)
		4학년	2(11.11)	3(16.67)	2(11.11)	9(50)	1(5.56)	1(5.56)	18(100)
		합계	3(3.80)	38(48.10)	13(16.46)	17(21.52)	4(5.06)	4(5.06)	79(100)
학 생	국제	2학년	1(5)	17(85)	2(10)	0(0)	0(0)	0(0)	20(100)
	통상	3학년	1(6.7)	10(66.67)	3(20)	0(0)	0(0)	1(6.7)	15(100)
	학과	합계	2(5.71)	27(77.14)	5(14.29)	0(0)	0(0)	1(2.86)	35(100)
		학생합계	5(4.39)	65(57.02)	18(15.79)	17(14.91)	4(3.51)	5(4.39)	114(100)
교 수			1(3.45)	5(17.24)	13(44.83)	4(13.79)	4(13.79)	2(6.90)	29(100)
합 계			6(4.20)	70(48.95)	31(21.68)	21(14.69)	8(5.59)	7(4.90)	143(100)

중 48% 이상인 14명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영역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총응답자 중 20% 이상인 30명이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한다’고 답변하여 ‘무역학이 국제통상학을 포함한다’보다 18%(27명)를 앞선다. 이는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 5명이 ‘무역학이 국제통상학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교수 응답자 3명이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한다’는 견해에 앞서는 것에 반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학생 의견에서 첫번째 다수의견으로서 국제통상학과 학생과 무역학과 학생은 모두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50~51%)을 차지하고, 두 번째 다수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국제통상학과 학생은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47%(17명)이고, 무역학과 학생은 ‘무역학이 국제통상학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27%(22명)이지만, 국제통상학과 학생은 어떠한 학생도 ‘무역학이 국제통상학을 포함한다’고 대답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무역학과 학생 중 일부 12.66%(10명)는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에 기인하기도 한다.

19) ① 비슷하다, ② 다르다, ③ 잘모르겠다 등의 보기를 단순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으나 좀더 자세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여 표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세분화하였음.

〈표 4〉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동일하다	동일한 부분 도 있지만, 각기 다른 영역이 있다	무역학은 국제통상학 을 포함한다	국제통상학 은 무역학을 포함한다	다르다	기 타	합 계
학 과	무 역 학	2학년	0(0)	16(45.71)	16(45.71)	2(5.71)	1(2.85)	0(0)	35(100)
		3학년	1(3.85)	18(69.23)	1(3.85)	5(19.23)	0(0)	1(3.85)	26(100)
		4학년	3(16.67)	7(38.89)	5(27.78)	3(16.67)	0(0)	0(0)	18(100)
		합계	4(5.06)	41(51.90)	22(27.85)	10(12.66)	1(1.27)	1(1.27)	79(100)
생	국 제 통 상 학 과	2학년	0(0)	10(50)	0(0)	10(50)	0(0)	0(0)	20(100)
		3학년	0(0)	8(50)	0(0)	7(43.75)	1(6.25)	0(0)	16(100)
		합계	0(0)	18(50)	0(0)	17(47.22)	1(2.78)	0(0)	36(100)
		학생합계	4(3.48)	59(51.30)	22(19.13)	27(23.48)	2(1.74)	1(0.87)	115(100)
교 수			6(20.69)	14(48.28)	5(17.24)	3(10.34)	1(3.45)	0(0)	29(100)
합 계			10(6.94)	73(50.69)	27(18.75)	30(20.83)	3(2.08)	1(0.69)	144(100)

(3) 국제통상과 무역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에 관한 질문

〈표 5〉에서 국제통상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로서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 14명(48.28%), 학생응답자 53명(46.90%)이 ‘국가(정부), 국제기구, 개별경제주체’를 들었으며, 이 대답은 국제통상학과(23명, 65.71%)와 무역학과(30명, 38.46%) 학생 역시 모두에게 첫번째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표 6〉에서는 무역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로서 전문가 그룹 교수응답자(13명, 44.83%), 국제통상학과 학생(21명, 60%)은 ‘개별경제(개인, 기업 등)’를 첫번째 대다수로 응답하였으며, 무역학과 학생은 여기에 국가와 국제기구를 더한 ‘국가(정부), 국제기구 및 개별주체(개인, 기업 등)’가 첫번째 대다수(32명, 40.51%)로 대답하였고, 두 번째 대다수 견해로 ‘국가(정부) 및 개별주체(개인, 기업 등)’(26명, 32.91%)가 차지하였다. 또한 〈표 5〉에서 보면 개별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등이 국제통상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라는 의견은 교수응답자 중 아무도 없었으며, 학생응답자도 1명이어서 거의 없었고, 〈표 6〉에서는 ‘국가(정부)’가 또는 ‘국가(정부) 및 국제기구’가 무역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라는 의견은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가 1명, 학생응답자 1명으로 대부분이 이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아 국제통상의 대부분의 행위주체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개별경제주체가 아니며, 무역의 대부분의 행위주체는 ‘국가(정부) 및 국제기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의하

〈표 5〉 국제통상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국가 (정부)	국가(정부) 및 국제기구	개별경제주 체(개인, 기업 등)	국가(정부) 및 개별경제 주체(개인, 기업 등)	국 가 (정부), 국제기구 및 개별경제주체 (개인, 기업 등)	기 타	합 계
학	무 역 학 과	2학년	6(17.14)	12(34.29)	1(2.85)	5(14.29)	10(28.57)	1(2.85)	35(100)
		3학년	3(11.54)	7(26.92)	0(0)	3(11.54)	13(50)	0(0)	26(100)
		4학년	0(0)	9(52.94)	0(0)	1(5.88)	7(41.18)	0(0)	17(100)
		합계	9(11.54)	28(35.90)	1(1.28)	10(12.82)	30(38.46)	0(0)	78(100)
생	국제 통상 학과	2학년	1(5)	3(15)	0(0)	3(15)	13(65)	0(0)	20(100)
		3학년	2(13.33)	2(13.33)	0(0)	1(6.7)	10(66.67)	0(0)	15(100)
		합계	3(8.57)	5(14.29)	0(0)	4(11.43)	23(65.71)	0(0)	35(100)
		학생합계	12(10.62)	33(29.20)	1(0.88)	14(12.39)	53(46.90)	0(0)	113(100)
교 수			3(10.34)	7(24.14)	0(0)	5(17.24)	14(48.28)	0(0)	29(100)
합 계			15(10.56)	40(28.17)	1(0.70)	19(13.38)	67(47.18)	0(0)	142(100)

〈표 6〉 무역에서 대부분 행위들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국가 (정부)	국가(정부) 및 국제기구	개별경제주 체(개인, 기 업등)	국가(정부) 및 개별경제 주 체 (개인, 기업등)	국 가 (정부), 국제기구 및 개별경제주체 (개인, 기업 등)	기 타	합 계
학	무 역 학 과	2학년	0(0)	1(2.85)	5(14.29)	10(28.57)	19(54.29)	0(0)	35(100)
		3학년	0(0)	0(0)	10(38.46)	8(30.77)	8(30.77)	0(0)	26(100)
		4학년	0(0)	0(0)	4(22.22)	8(44.44)	5(27.78)	1(5.56)	18(100)
		합계	0(0)	1(1.27)	19(24.05)	26(32.91)	32(40.51)	1(1.27)	79(100)
생	국제 통상 학과	2학년	0(0)	0(0)	12(60)	6(30)	2(10)	0(0)	20(100)
		3학년	0(0)	0(0)	9(60)	6(40)	0(0)	0(0)	15(100)
		합계	0(0)	0(0)	21(60)	12(34.29)	2(5.71)	0(0)	35(100)
		학생합계	1(3.45)	0(0)	13(44.83)	10(34.48)	5(17.24)	0(0)	29(100)
교 수			1(3.45)	0(0)	13(44.83)	10(34.48)	5(17.24)	0(0)	29(100)
합 계			1(0.70)	1(0.70)	53(37.06)	48(33.57)	39(27.27)	1(0.70)	143(100)

면 국제통상의 대부분 행위주체는 ‘국가(정부), 국제기구, 개별경제주체’가 응답자의 47.18%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무역의 대부분 행위주체, 역시 ‘개별경제주체’

(37.06%) 외에 '국가 및 개별경제주체'(33.57%), '국가(정부), 국제기구 및 개별경제주체'(27.27%)로서 응답한 사람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무역과 국제통상의 대부분 행위주체에서의 인식구분이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다.

(4) 국제통상과 무역의 중요한 활동에 관한 질문

〈표 7〉에서 국제통상의 중요한 활동이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와 국가 간 상거래' 모두란 의견이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 19명(63.33%)과 학생응답자 35명(30.43%)이었으며,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만은 전체 응답자에서는 57명(39.31%)으로 가장 많은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교수응답자는 9명(30%), 학생응답자는 48명(41.74%)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통상의 중요한 활동이 '국가 간 상거래'라고만 응답한 사람은 교수응답자 1명에 불과하였다.

〈표 8〉에서 무역의 중요한 활동은 '국가 간 상거래'란 의견이 전문가 그룹인 교수응답자(14명, 48.28%)와 전체 응답자(84명, 59.57%)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두 번째 다수의견으로 '국가 간 상거래 및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란 의견이 차지하였으나, 무역의 중요한 활동으로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라고 대답한 의견은 교수응답자 1명(3.45%), 학생응답자 4명(3.5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제통상의 중요 활동이 '국가 간 상거래'란 견해와 무역의 중요 활동이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라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무역의 중요한 활동은 대다수가 '국가 간 상거래'로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제통상의

〈표 7〉 국제통상의 중요한 활동

(단위: 명(%))

구 분			국가 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	국가 간 상거래	①과 ②	①과 ② 모두 아니다	합 계
학	무 역 학 과	2학년	20(57.14)	5(14.29)	5(14.29)	5(14.29)	35(100)
		3학년	9(34.62)	4(15.38)	10(38.46)	3(11.54)	26(100)
		4학년	7(38.89)	4(22.22)	5(27.78)	2(11.11)	18(100)
		합계	36(45.57)	13(16.46)	20(25.32)	10(12.66)	79(100)
생	국제 통상 학과	2학년	5(23.81)	8(38.10)	7(33.33)	1(4.76)	21(100)
		3학년	7(46.67)	0(0)	8(53.33)	0(0)	15(100)
		합계	12(33.33)	8(22.22)	15(41.67)	1(2.78)	36(100)
		학생합계	48(41.74)	21(18.26)	35(30.43)	11(9.57)	115(100)
교 수		9(30)	1(3.33)	19(63.33)	1(3.33)	30(100)	
합 계		57(39.31)	22(15.17)	54(37.24)	12(8.28)	145(100)	

〈표 8〉 무역의 중요한 활동

(단위: 명(%))

구 분			국가 간 상거래 계약요인 완화	국가 간 상거래	①과 ②	①과 ② 모두 아니다	합 계
학	무	2학년	2(5.88)	12(35.29)	13(38.24)	7(20.59)	34(100)
	역	3학년	0(0)	20(76.92)	5(19.23)	1(3.85)	26(100)
	학	4학년	1(5.88)	11(64.71)	5(29.41)	0(0)	17(100)
	과	합계	3(3.90)	43(55.84)	23(29.87)	8(10.39)	77(100)
생	국제	2학년	1(5)	13(65)	2(10)	4(20)	20(100)
	통상	3학년	0(0)	14(93.3)	1(6.7)	0(0)	15(100)
	학과	합계	1(2.86)	27(77.14)	3(8.57)	4(11.43)	35(100)
	학생합계		4(3.57)	70(62.5)	26(23.21)	12(10.71)	112(100)
교 수			1(3.45)	14(48.28)	11(37.93)	3(10.34)	29(100)
합 계			5(3.55)	84(59.57)	37(26.24)	15(10.64)	141(100)

중요한 활동은 ‘국가 간 상거래 계약요인 완화’나 여기에 ‘국가 간 상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5) 국제통상과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에 관한 질문

〈표 9〉에서 전체응답자는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公)부문’이 첫번째 대다수의견(77명, 54.23%)을 차지하고, 〈표 10〉에서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사(私)부문’(98명, 69.5%)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가 의견인 교수응답자는 〈표 9〉에서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경영활동과 관련한 공(公)부문’과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 관련 사(私)부문’ 모두(17명, 58.62%)를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으로서는 〈표 10〉에서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 관련 사(私)부문’(13명, 44.83%)을 첫번째 대다수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단지 두 번째 대다수의견에서,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표 9〉에서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관련된 공(公)부문’(11명, 37.93%)을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표 10〉에서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부문’과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사(私)부문’ 모두(13명, 44.83%)를 대다수의견으로 견해를 달리하였으며,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사(私)부문’으로 대답한 교수응답자는 1명에 불과하였으며,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公)부문에 답변

〈표 9〉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

(단위: 명(%))

구 분			국가적 측면에서 의 경제활동과 관 련된 공부문 (public sector)	개인, 사기업 경 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부문 (private sector)	①과 ②	①과 ② 모두 아니다	합 계
학 과	무 역	2학년	26(74.29)	6(17.14)	2(5.71)	1(2.85)	35(100)
		3학년	13(50)	1(3.85)	11(42.31)	1(3.85)	26(100)
	학 과	4학년	11(64.71)	2(11.76)	4(23.53)	0(0)	17(100)
		합계	50(64.10)	9(11.54)	17(21.79)	2(2.56)	78(100)
생 통 상 학 과	국제	2학년	8(40)	0(0)	12(60)	0(0)	20(100)
		3학년	8(53.33)	0(0)	7(46.67)	0(0)	15(100)
	학과	합계	16(45.71)	0(0)	19(54.29)	0(0)	35(100)
	학생	합계	66(58.40)	9(7.96)	36(31.86)	2(1.77)	113(100)
교 수			11(37.93)	1(3.45)	17(58.62)	0(0)	29(100)
합 계			77(54.23)	10(7.04)	53(37.32)	4(2.82)	142(100)

한 교수응답자 역시 1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통상의 주요 관련영역은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관련된 공(公)부문 측면’,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으로는 ‘개인, 사기업 경제·경영활동 관련된 사(私)부문’으로 전문가 교수와 학생의견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발전방향에 관하여는 〈표 11〉에서 ‘각기 독립된 전공을 유지한 채 동일한 학부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응답자(12명, 41.38%), 학생응답자(42명, 36.84%), 전체 의견(54명, 37.76%)로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하여 교수, 학생 모두 각기 독립된 전공을 유지한 채 동일한 학부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교과목에 대한 질문

전문가 그룹인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의 설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질문으로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샘플 교과과목 16개 교과목을 보기로 열거하고,²⁰⁾ 10

20) 과목선정시 객관적 대표성보다는 일부대학의 무역학과와 국제통상학과와 교과과목들 중 과목의 공통성, 상이성들의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들을 필자가 임

〈표 10〉 무역의 주요 관련영역

(단위: 명(%))

구 분			국가적 측면에서 의 경제활동과 관 련된 공부문 (public sector)	개인, 사기업 경 제·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부문 (private sector)	①과 ②	①과 ② 모두 아니다	합 계
학 과	무 역 학 과	2학년	1(2.85)	24(68.57)	10(28.57)	0(0)	35(100)
		3학년	2(7.69)	17(65.38)	6(23.08)	1(3.85)	26(100)
		4학년	0(0)	11(64.71)	6(35.29)	0(0)	17(100)
		합계	3(3.85)	52(66.67)	22(28.21)	1(1.28)	78(100)
생 태	국제 통상 학과	2학년	1(5)	17(85)	1(5)	1(5)	20(100)
		3학년	0(0)	14(100)	0(0)	0(0)	14(100)
		합계	1(2.94)	31(91.18)	1(2.94)	1(2.94)	34(100)
		학생합계	4(3.57)	83(74.11)	23(20.54)	2(1.79)	112(100)
교 수			1(3.45)	15(51.72)	13(44.83)	0(0)	29(100)
합 계			5(3.55)	98(69.50)	36(25.53)	4(2.84)	141(100)

〈표 11〉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각기 독립 된 학과로 발전 되어 야 한다	국제 통 상 학과는 무 역 학 과 에 흡 수 되 어 야 한다	무 역 학 과 는 국제 통 상 학 과 에 흡 수 되 어 야 한다	각기 독립된 전 공을 유지한 채 동일한 학부 로 되어야 한다	동일한 학 과로 합쳐 져야 한다	기 타	합 계
학 과	무 역 학 과	2학년	9(25.71)	12(34.29)	0(0)	13(37.14)	1(2.85)	0(0)	35(100)
		3학년	6(23.08)	4(15.38)	0(0)	11(42.31)	3(11.54)	2(7.69)	26(100)
		4학년	2(11.76)	4(23.53)	1(5.88)	7(41.18)	2(11.76)	1(5.88)	17(100)
		합계	17(21.77)	20(25.64)	1(1.28)	31(39.74)	6(7.69)	3(3.85)	78(100)
생 태	국제 통상 학과	2학년	7(33.33)	0(0)	7(33.33)	7(33.33)	0(0)	0(0)	21(100)
		3학년	4(26.67)	1(6.7)	5(33.33)	4(26.67)	1(6.7)	0(0)	15(100)
		합계	11(30.56)	1(2.78)	12(33.33)	11(30.56)	1(2.78)	0(0)	36(100)
		학생합계	28(24.56)	21(18.42)	13(11.40)	42(36.84)	7(6.14)	3(2.63)	114(100)
교 수			1(3.45)	4(13.79)	3(10.34)	12(41.38)	9(31.03)	0(0)	29(100)
합 계			29(20.28)	25(17.48)	16(11.19)	54(37.76)	16(11.19)	3(2.10)	143(100)

의로 선정하였으며 국제경영학, 국제마케팅 등 경영학과의 교과과정과 중복되는 과목과 국제경제학 등 경제학과의 교과과정과 중복되는 과목은 본 논문의 초점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음. 따라서 각 대학의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일반적 교과과정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무역' 또는 '통상'이란 과목명칭에 따른 판단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음.

번째 질문은 보기 교과과목들 중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유사한(또는 공통적인) 교과과목’을 열거하기를 요청하였으며 11번째 질문은 보기 교과과목 중 ‘무역학과의 교과과목과 유사하지 아니한(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제통상학과의 고유한 교과과목’을 열거하기를 요청하였으며, 11번째 질문은 보기 교과과목 중 ‘무역학과의 교과과목과 유사하지 아니한(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제통상학과의 고유한 교과과목’을 열거하기를 요청하였고, 12번째 질문은 보기 교과과목 중 ‘국제통상학과의 교과과목과 유사하지 아니한(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제통상학과의 고유한 교과과목’을 열거하기를 요청하였다.

〈표 12〉를 살펴보면 어떠한 과목들이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대에 공통적으로 속하며 어떠한 과목 등이 국제통상학과의 성격에 가까운지, 아니면 무역학과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인지하는지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유사(공통)과목으로는 16개과목 중 ‘무역정책’(19명), ‘국제무역론’(15명), ‘무역학원론’(12명), ‘무역협상론’(12명) 등이 유사(공통)과목으로 가장 많이 인지 되었다. 이 중에서 ‘무역학원론’, ‘무역정책’은 무역학과

〈표 12〉 국제통상학과 · 무역학과 교과과목들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국제통상학과 · 무역학과의 유사(공통)과목	무역학과 유사하지 않은(포함되지 않은) 국제통상학 고유과목	국제통상학과 유사하지 않은(포함되지 않은) 무역학 고유과목	합 계
무역학원론	12(66.67, 8.96)	0(0, 0)	6(33.33, 8.57)	18(100, 5.90)
국제통상학원론	11(6.11, 8.21)	7(38.89, 6.93)	0(0, 0)	18(100, 5.90)
무역협상론	12(66.67, 8.96)	3(16.67, 2.97)	3(16.67, 4.29)	18(100, 5.90)
국제협상론	9(39.13, 6.72)	14(60.87, 13.86)	0(0, 0)	23(100, 7.54)
무역정책	19(86.37, 14.18)	0(0, 0)	3(13.64, 4.29)	22(100, 7.21)
국제통상정책	10(47.62, 7.46)	11(52.38, 10.89)	0(0, 0)	21(100, 6.89)
국제무역론	15(68.18, 11.19)	1(4.55, 0.99)	6(27.27, 8.57)	22(100, 7.21)
관 세 론	11(61.11, 8.21)	2(11.11, 1.98)	5(27.78, 7.14)	18(100, 5.90)
무역법규	8(52.22, 5.97)	0(0, 0)	7(46.67, 10)	15(100, 4.92)
무역운송론	6(28.57, 4.48)	0(0, 0)	15(71.43, 21.43)	21(100, 6.89)
수출입개론	7(38.89, 5.22)	2(11.11, 1.98)	9(50, 12.86)	18(100, 5.90)
무역결제론	5(26.32, 3.73)	0(0, 0)	14(73.68, 20)	19(100, 6.23)
국제통상외교론	1(4.76, 0.75)	19(90.48, 18.81)	1(4.76, 1.43)	21(100, 6.89)
국제통상법	4(23.53, 2.99)	13(76.47, 12.87)	0(0, 0)	17(100, 5.57)
국제정치경제학	2(11.76, 1.49)	14(82.35, 13.86)	1(5.88, 1.43)	17(100, 5.57)
국 제 법	2(11.76, 1.49)	15(88.24, 14.85)	0(0, 0)	17(100, 5.57)
합 계	134(43.93, 100)	101(33.11, 100)	70(22.95, 100)	305(100, 100)

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통상학과 고유과목으로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국제무역론’은 1명에 불과하여 이 ‘무역학원론’, ‘무역정책’, ‘국제무역론’은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공통과목이면서도 국제통상학과의 고유과목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역학과와 유사하지 아니한(포함되지 않는) 국제통상학과의 고유과목으로는 16개 과목 중 ‘국제통상외교론’(19명), ‘국제법’(15명), ‘국제협상론’(14명), ‘국제정치경제학’(14명) 등이 가장 많이 판단되었다. 이 네과목 중 ‘국제법’과 ‘국제협상론’을 무역학과 고유과목으로 판단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국제통상외교론’, ‘국제정치경제학’ 역시 각각 1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네 과목은 국제통상학과의 고유과목으로 대부분이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상학과와 유사하지 아니한(포함되지 않는) 무역학과의 고유과목으로는 16개과목 중 ‘무역운송론’(15명)과 ‘무역결제론’(14명)이 가장 많이 판단되었다. 특히 이 두 과목을 국제통상학과의 고유과목으로 판단한 교수는 한 사람도 없어 역시 무역학과의 고유과목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이러한 설문결과로 비추어 볼 때 교과과목에서도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공통부분, 국제통상학과의 고유부분, 무역학과의 고유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교수)들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8)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의 유사성이나 차이점과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교수)의 주관적 견해

전문가 그룹인 교수들에게는 설문지의 13번째 질문으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대하여 설문지 14번째 질문으로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을 부탁하였다. 답변자 모두의 견해를 지면 관계상 신지는 못하지만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일부 교수들의 견해를 각 교수들의 의명을 전제로 소속대학만을 밝히고 가급적 전문을 <표 13>에서 실어 전문가들의 견해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13>에서의 전문가의 대표적 견해에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관한 전문가(교수)들의 견해는 각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견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은 완전히 동일하다.

둘째, 국제통상학은 무역학에다 통상외교, 협상측면을 강조한 상위의 포괄적 개념이다.

〈표 13〉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차이점(유사성), 두 학과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주관적 견해

구 분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향후 발전방향
서강대 K교수	- 무역학: 무역거래의 기술적 측면 - 국제통상학: 무역거래의 여건을 이루는 주변상황에 관련된 측면	양자가 상호보완적
고려대 O교수	상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학부에서는 너무 세분화된 전공이 필요 없음	동질성을 지키기 위해 사례로 강의하는 과목을 많이 포함시킬 것
충남대 O교수	무역학의 연구대상은 원래부터 Goods, Service, Capital임. 그런데 GATT체제하에서 무역주요대상은 Goods였음. 그러나 WTO체제하 Goods 이외 서비스, 자본이동, 지적재산권 등 교류가 가능한 모든 것 포함. 따라서 무역학의 연구대상은 모든 것이 포함됨. 그러나 무역(학)이라면 Goods의 국제교류로만 잘못 인식되어 국제통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부에서 만들	무역학이 재화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협성대 K교수	무역학보다는 국제통상학이 상위개념이며 폭넓은 사기업에서 국가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무역학과는 국제통상학으로 가야 하며 경제분야 20%, 국제경영 20%, 무역상무 40%, 협상분야 10%, 어학분야(무역영어) 10%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충북대 K교수	무역은 경제주체 중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경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침 국제통상은 국가 대 국가의 교역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제반활동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모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므로 경영대학 소속으로 국제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등으로 전환이 가능함.
대전대 H교수	개인기업의 상행위 결과로 발생된 문제해결과정 또는 해결 협상차원이 국제통상이다.	무역은 기업의 해외활동, 즉 수출 라이선싱, 투자 등 미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또는 정책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원대 L교수	무역학=국제경제+국제상학+국제경영 국제통상학=국제정치경제+국제법+국제경제	현재 무역학과, 통상학과에서 통상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문대학이나 중하위대학에서는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위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통상전문가(관료)를 양성하는 역할분담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구 분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향후 발전방향
동아대 P교수	대외무역 과목을 취급한다는 데는 유사하지만 국제통상은 국가 간·국제 간 협약, 협정에 더 치중한다.	국제통상학과도 학과명은 어떠한지 사회 활용가능한 무역학과에서 취급하는 과목과 비슷해야 한다.
강릉대 L교수	무역학은 사기업부문 국제통상은 정부·공공부문쪽에 focus를 맞추고 있으므로 국제통상은 국제통상법, 통상외교, 국제정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문의 영역구분도 모호해짐.	core 과목은 같을지라도 concentrate subject는 달리하여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대 C교수	목표는 동일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	국제통상학과나 무역학과는 하나의 학부(학과)로 존재하되 전공은 구별되어야 함.
서울대 O교수	구태여 구분하는 이유가 없고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겠음	
인하대 O교수	무역학이든 국제통상학이든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고 양쪽의 독자적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을 합쳐 한 학문영역으로 해야함.	학과명칭 통일이 필요함.
강릉대 A교수	국가 간 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성은 같으나 국제통상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국가 간 통상의 측면이 강조됨.	학부제로 운영하여 국제통상은 국가 간 외교적 측면을 강조하고 무역은 국가간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여 상호 보완하여 발전하여야 함.
인제대 O교수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학문임.	국제통상학과로 개편해야 한다.
협성대 K교수	유사성은 내용이 무역이란 점이고 차이점은 통상학은 무역+통상정책+국제기구의 활동임.	경상계열 내에서 상호보완 가능하나 현실적 여건상 독립적 운영이 가능
강원대 L교수	두 분야가 서로 독특한 패러다임을 갖지 않아 거의 동일하나 학교에 따라 교수 전공분포에 따라 교과목 해석을 달리할 뿐이다.	두 학과는 서로 합병하고 교과목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여야 한다.
인하대 S교수	중요 경제주체, 중요 관련영역 등에 있어서 구분이 명백해진다.	향후 무역학과는 국제상무+사이버무역분야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무역학은 국제통상학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무역학은 단순 goods에 대한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을 포함하므로 국제통상학의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

넷째,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은 유사한 공통영역이 많이 존재하지만 무역학은 실무적·사적, 비즈니스부문에 비중을, 국제통상학은 국제협상, 통상외교, 통상정책 등 공적 부문에 비중을 두는 고유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의 차이에 대한 전문가(교수)들의 인식차이에 따라 향후 국제통상학과와 무역학과의 발전방향도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두 학과는 동일한 내용의 학과이므로 통합되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통상학과로의 발전과 무역학과로의 발전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겠다.

둘째, 두 학과는 독립적 학과로 각기 발전하여야 한다.

셋째, 학부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무역전공은 무역이론, 국제비즈니스, 무역상무, cyber무역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제통상 전공은 통상외교, 통상마찰 해소, 통상관련법규, 통상관련 거시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로 좀 특이한 소수 견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 기존 무역학과와 국제통상학과의 체제에서는 국제통상 전문가의 양성이 어려우므로 전문대학이나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무역전문가 양성에 비중을 두고, 상위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통상 전문가 양성에 비중을 두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론에서 볼 때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관한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도 크게 나누어 보니 이전에서의 객관적 설문조사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 학과의 발전방향에 관한 견해 역시 객관적 설문조사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물론 학생들의 견해는 교수들의 의견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전문가 그룹인 교수들의 견해에서도 예상가능하였던 여러 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다수의 견해는 제Ⅱ절에서의 본 논문의 주장과 크게 범위를 달리 하지 아니하였으나, 설문조사결과에서 '대부분 행위의 주체' 등 일부에서 '무역'과 '국제통상학'의 구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학(과)는 기존 무역학

(과)에 서비스교역, 국제투자 등 무형적 재화의 국제이동을 단순히 덧붙이는 영역이 아닌 기존 무역학(과)와는 차별화된 독자영역이 존재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무역'이 개별경제주체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상품 및 자본, 생산요소를 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통상'은 국가기관 자신이 국가 전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가기관과 함께 국가 간의 상거래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활동에 관련된 것에 더 비중을 둔다 하겠다.

따라서 국제통상학의 분야는 무역학이 좀더 개별경제주체이익을 위한 사부문(private sector)에 관련된 영역인 데 반하여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좀더 공부문(public sector)과 관련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통상학과와 향후 발전방향도 이러한 영역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이 국제통상학이 무역학의 주요 영역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무역학이 국제통상학의 주요영역을 취급할 수 없음을 뜻하는 바는 아니며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중의 문제로 해석함이 옳다 하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설문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두 학문의 유사성(상이성)에 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나, 결론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하겠으며, 특히 설문조사방법 등에서 설문내용과 보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호할 수도 있으며,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제한된 일개 대학의 학생들에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의 확대해석 등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결과 또는 결론의 절대성보다는 본 연구를 계기로 양 학문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관한 적극적 토론과 학문적 관심을 증대시켜 양 학문의 독립적이고도 보완적 관계를 확립하여 양 학문의 발전에 기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는바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김시경, 『최신무역학개론』, 삼영사, 1998.
 김영철 외, 『국제무역실무론』, 두남, 1999.
 서근태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Disciplinary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Commerce (so-called 'Kukje Tongsang'))' and 'International Trade (so-called 'Muyeok'))' in Korea*

Sung Pyo Chi

In Korea, the new discipline of 'International Commerce(so-called 'Kukje Tong-sang'))' has been established in the 1990's, a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discipline of 'International Trade(so-called 'Muyeok'))' in Korea. Because of the human resources ne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However,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new disciplin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the existing discipline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an argument continues to exist among Korean scholars regarding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 advance of this kind of issue whether there are no disciplinary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departments of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in the same Korean universiti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study and to define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 developing and upgrading two discipline in Korea.

However, while the mai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Trade' consists of international business between individuals across countries, the mai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are to facilitate the limitation factors in International Business across countries. Therefore, while the main discipline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 would be more related to the private sector, the main area of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Commerce' in Korea would be

* 본문 p.3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통상을 무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Commerce'로 번역하였다(또한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등에서 국제통상학과와 영문명칭을 'International Commerce'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을 'International Trade'로 번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영문번역이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more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test the above statements empirically, we have surveyed whether our statements are supported by the other Korean scholars. We have distributed a questionnaire to the students and professo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s throughout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bove statements about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have been largely approved.

However, the point is not to insis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wo disciplines but to encourage the discussion and academic interest about the differences or similarities between two disciplines and to contribute to the unique disciplinar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 Korea.